

##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해외 보험 회사를 인수하기 쉽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안에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 종업을 산하에 둔 해외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내 보험회사와 은행, 해외 보험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회사와 자동차 수리 회사를 산하에 둔 해외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러한 해외 보험 회사의 주식 보유를 일정 기간 내에 인정하여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노동자 파견법 통과, 30일 이내인 일용직 파견은 원칙 금지

파견 노동자의 대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개정 노동자 파견법이 28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고용 기간이 30일 이내인 일용직 파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파견 회사는 수수료 할인 공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초 정부안을 수정하여 일이 있을 때만 고용 계약을 맺는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당초보다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 도시바, 히타치, 소니 통합회사, 유기EL 패널 진출. 스마트폰용, 삼성 추격

도시바(東芝),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소니 3사와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공동 출자한 중소형 액정 패널 회사, 재팬 디스플레이는 2일, 유기EL 패널 시장에 진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2013년도에 스마트폰용 유기EL 패널의 양산에 들어갑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의 삼성 그룹을 추격할 방침입니다.

## 미에현(三重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가동 예정

하쿠토가 츠시(津市)에 보유한 약 4만 평의 유휴지에 캐나디언 솔라사의 태양 전지를 사용한 메가 솔라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 솔라 프로젝트 중에서 해외 기업이 참여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한 전기는 전량 전력회사에 판매하여 두 회사가 수익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캐나디언 솔라는 홋카이도 등 4~5개 곳에서도 출력 500~2천 kwh 규모의 메가 솔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가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미쓰이 물산과 샤프 등 대기업이 연이어 메가 솔라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썬에디슨 등 해외 기업도 메가 솔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건설 장소는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M&A, 11년도 2배 7조 엔 규모 넘어

11년도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금액은 7조 3,264억 엔으로 전년대비 2배로 급증하여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했던 2008년도를 웃돌았습니다. 건수 면에 있어서도 474건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맥주와 약품 등과 같은 내수 기업에 의한 대형 인수입니다. 내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엔화 강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나,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M&A에 대한 의욕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경상수지 2개월 만에 흑자, 2월 1조 1,778억 엔

재무성이 발표한 2월 국제수지상황에 따르면, 해외화의 종합적인 거래 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1조 1,778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흑자액이 30.7%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수지의 내역을 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1,021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5조 247억 엔입니다. 중국의 춘절이 지나 하락세가 완화되었고 미국용으로는 자동차 수출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11.1% 증가한 5조 1,456억 엔으로 2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수입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여행과 수송 등의 동향을 나타내는 서비스 수지는 1,304억 엔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무역 서비스 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비교 가능한 1985년 1월 이후 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 투자에서 얻는 이자와 배당 등을 나타내는 소득수지의 흑자는 3.9% 증가한 1조 2,430억 엔이었습니다.

## 원전 가동률, 2011년도에는 최저인 23.7%

전력회사와 기기 제조사로 구성된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도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가동률)은 2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전력회사들은 안전공급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일본 국내 54기 중, 홋카이도 전력 도마리(泊)원전 3호기 1기뿐입니다. 이 원전은 5월 5일에 점검으로 정지될 예정입니다. 정부 등이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간사이(関西)전력의 오오이(大飯)원전 3, 4호기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일본 모든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 기업의 외채발행 급물살, M&A 자금 조달 1~3월

일본기업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1~3월의 발행액은 이미 작년 1년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표시 발행도 증가하여, 올 한 해 동안 과거 최고였던 2010년 446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신용력 회복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해외 기업의 M&A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영미조사회사 딜 로직에 따르면 1~3월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액은 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의 52%에 해당됩니다. 은행 및 보험, 자동차 대기업 등 해외에서의 사업 확대를 노린 발행이 눈에 띕니다.

## 가메다(亀田)제과, 농심과 제휴

일본의 가메다(亀田)제과는 한국의 식품 대기업인 농심과 상품 공동 개발 및 생산 기술을 공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가을 한국에서 공동 개발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아시아에 있는 상호 판매 경로를 활용한 영업 활동도 전개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농심과 관계를 강화하여 현재 수%에 지나지 않는 해외 판매액 비율을 2018년도까지 30%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 한국계 해운 회사인 썬스타라인, 가나자와(金沢)에 영업소 개설

가나자와(金沢)와 츠루가(敦賀) 두 곳의 항구와 한국의 부산항 등을 연결하는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는 썬스타라인은 이번 5월 가나자와시에 영업소를 개설합니다. 썬스타라인은 한국 선박 회사인 팬스타의 자회사로 한국계 선박 회사가 일본 중부 지방에 영업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고야 항구 등에서 수출하는 일본 중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 항구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여 화물 취급량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선박 회사는 화물 취급량이 많은 항구와 가까운 도쿄와 오사카 등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한국의 동해 쪽 항구에서는 각 항구의 하역 회사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